

350억 대작으로 돌아온 ‘명품 배우’ 하정우

마약왕 황정민과 숨막히는 추격전 ‘범죄와의 전쟁’ 윤종빈 감독 재회 6편에 탄탄한 스토리 콕콕 담아내 유튜브 예고편 3주만에 133만뷰 ↑

화려한 출연진과 거대 제작비를 투입한 스케일로 ‘제2의 오징어게임’을 노리는 시리즈가 9일 베일을 벗는다. 하정우, 황정민, 박해수, 유연석, 조우진 등 연기력을 갖춘 톱스타들이 대거 나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이다. 이들과 함께 중국 스타 장첸 등이 출연하는 ‘수리남’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를 연출한 윤종빈 감독이 35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해외 대규모 로케이션 등으로 완성한 작품이다. ‘수리남’은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이후 올해 초 선보인 ‘지금 우리 학교는’ 말고는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둔 오리지널 시리즈와 영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주목하게 한다. 2년여 휴식해온 하정우도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에 이어 윤 감독과 손잡고 복귀 성공을 노리고 있다.

●하정우의 복귀 아심과 스타 파워로…

‘수리남’은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마약 조직의 음모로 누명을 쓴 주인공이 국가정보원의 비밀임무를 수행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하정우는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삶을 꾸려가기 위해 수리남으로 떠난 뒤 사건에 휘말리는 주인공이다. 하정우는 이번 작품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는 2000년대 실제 벌어진 사건을 우연한 기회에 접한 뒤 윤종빈 감독에게 관련 연출을 제안했다. 하정우는 2005년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이후



배우 하정우(가운데)가 9일 전 세계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을 통해 2년여 만에 대중 앞에 다시 나선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비스티 보이즈’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군도: 민란의 시대’ 등 네편을 윤 감독과 함께 했다. 방대한 이야기를 2시간 안팎의 영화로는 풀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윤 감독은 드라마화를 결정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또 다른 스타들이 힘을 보탰다. 영화 ‘공작’으로 윤 감독과 호흡한 황정민이 목사로 위장한 무소불위의 마약왕 역으로 나섰다. ‘오징어게임’과 ‘종이의 집’, 영화 ‘야차’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에 잇따라 출연해 ‘넷플릭스 공무원’이라는 별명을 얻은 박해수도 국정원 요원을 연기한다. 조우

진과 유연석을 비롯해 할리우드를 오가며 활약하고 있는 중국배우 장첸도 출연해 기대를 높인다.

●대규모 스케일로 ‘승부’

6부작인 시리즈는 영토 분쟁지인 수리남 대신 도미니카공화국을 촬영지 삼았다. 제작진은 이를 통해 남미의 풍광을 담아냈고, 국내 대규모 세트 촬영을 이어가면서 회당 약 60억 원, 모두 350억 원의 역대 최대 제작비를 투입했다. 250억 원의 9부작 ‘오징어게임’을 뛰어넘는 스케일을 엮보게 한다.

이는 1월 ‘지금 우리 학교는’ 이후 선

보인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의 연이은 흥행 실패로 비상이 걸린 넷플릭스가 ‘수리남’ 흥행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특히 추석 연휴 개봉하는 신작 영화가 ‘공조 2: 인터내셔널’ 딱 한 편뿐인 극장가 대신 명절을 맞아 OTT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수리남’의 예고편이 유튜브상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8월 중순 유튜브에 공개된 첫 번째 티저 예고편이 3주 만에 133만 뷰를 넘겼고, 8월 말 선보인 메인 예고편은 6일 현재까지 51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연예

스포츠동아 2022년 9월 7일 수요일 11

국민 54% “BTS 병역의무 다해야” 20대 반대 응답 73%로 가장 많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방부가 관련 여론조사를 검토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철회한 뒤 나온 설문조사 결과이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조원씨앤아이가 4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BTS(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4.1%의 응답자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응답은 40.1%였다.

반대 응답자 가운데에는 20대가 7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60.4%), 40대(49.4%), 50대(48.3%), 60대 이상(47.5%) 순이었다. 또 남성 58.1%, 여성 50.3%가 반대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일부 정치인이 해외에서 케이팝의 입지를 다진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의견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방탄소년단을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대사로 발탁하며 이들의 병역특례를 대통령실에 건의하기도 했다. 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과 비판을 불러 모았다. 이에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혼란을 키웠다.

한편 이번 조사는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통해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다.

이정현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장근석, 고액 후원 공로 서울시장상 수상



장근석

배우 장근석이 고액 후원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 6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 따르면 고액 후원자 장근석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제23회 사회복지의날 기념 ‘2022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았다. 해당 상은 사회의 귀감이 되는 후원자·자원봉사자·복지시설 종사자나 단체 등에 수여된다. 장근석은 “2009년 5명의 아동 후원을 시작으로 어느덧 100명의 아이들과 결연을 맺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효성 ‘자폐 스펙트럼 청년 협업’ 신곡 발표

가수 겸 배우 전효성이 자폐 스펙트럼 청년과 협업한 프로젝트 음원 ‘바다빛 이야기를 찾아와’로 3년 만에 신곡을 발표했다. 6일 라이블리컴퍼니에 따르면 이날 정오 공개된 신곡은 인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인 ‘2022 웹툰 투 라이블리 인천’의 프로젝트 음원이다. 전효성이 노래를 불렀고 인천 영종도의 비영리 예술법인 ‘꿈꾸는 마을’의 자폐 스펙트럼 청년 미술작가의 작품 중 하나를 음원의 표지 이미지로 선정했다. 이번 협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인천 테크노파크의 제작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우영우’ 美·日 등서 리메이크 제언 받아”

글로벌 흥행을 거머쥔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미국에 이어 일본, 튀르키예 등에서 리메이크 제언을 받았다. 6일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8월 31일부터 2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마켓 2022’ 행사에서 미국, 일본, 중국, 튀르키예, 필리핀, 독일 등 전 세계 업체 수십 곳에서 리메이크 제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의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들의 프로듀싱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8월 18일 종영한 드라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의 이야기를 담아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비영여권 TV프로그램 부문 1위에 올랐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보검(왼쪽 사진 중앙), 차인표 등 톱스타들이 추석 연휴 중 방송되는 새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를 만난다.

사진제공 | 티빙·KBS

박보검·차인표…추석 연휴 안방극장 ‘노크’

박보검, 티빙 ‘청춘MT’로 복귀 차인표, KBS 특집 ‘종로사진관’ 추성훈·사랑 부녀 예능 출연도

반가운 얼굴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박보검, 차인표 등 톱스타를 비롯해 2013년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에 출연한 종합격투기선수 추성훈의 딸 사랑이 등 ‘국민 조카’들도 활짝 성장한 모습으로 시청자들 앞에 선다.

박보검은 티빙 8부작 예능 콘텐츠 ‘청춘MT’를 연휴 첫날인 9일 내놓는다. 올해 4월 전역한 그가 방송가에 나서는 것은 2020년 9월 tvN ‘청춘기록’ 이후 2년 만이다. 2016년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호흡을 맞춘 김유정·진영 등과 MT를 떠나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매력을 한껏 드러낼 예정이다.

연출자인 김성운 PD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 드라마 대신 예능 포맷을 복귀 작품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에는 JTBC ‘이태원 클라쓰’의 박서준·안보희, 넷플릭스 ‘안나라수마나라’의 지창욱·최

성은 등 김 PD가 연출한 드라마의 주역들이 총출동한다.

추사랑은 같은 날 첫 방송하는 tvN스토리 ‘이젠 날 따라와’를 통해 5년 만에 예능 고정 출연자로 나선다. 2017년 SBS ‘추블리네가 뒀다’가 그의 마지막 고정 출연 프로그램이었다. 두 살 무렵 ‘슈돌’에서 사랑스러운 매력을 드러내면서 ‘추블리’라는 수식어까지 얻은 그는 11살 소녀로 성장해 의젓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추사랑이 배우 이종혁의 아들 준수, 가수 윤민수의 아들 후, 축구스타 이동국의 딸 재시 등과 함께 하와이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그린다.

차인표는 10,11일 KBS 1TV 추석특집 프로그램 ‘종로사진관’에 나선다. 지난해 JTBC ‘시고르 경양식’ 이후 1년여 만에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이다. 그는 오랫동안 취미로 삼은 사진 촬영을 매개로 해 사진관을 찾은 손님들의 굴곡진 인생사를 소개한다. 비보이 댄서 흥텐, 강봉희 장례지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직접 이들의 사진을 찍어 선물하는 열정도 드러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추억의 애니·만화, 드라마·영화로 재탄생

추억의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재해석하는 드라마와 영화가 잇따라 나온다. 대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큰 흐름을 형성하면서 관련 판권 등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고전’을 새로운 원천 콘텐츠로 삼으려는 시도이다.

1988년 만화잡지 ‘아이큐점프’의 연재만화를 원작 삼아 1990년 KBS가 방영한 애니메이션 ‘영심이’가 10부작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배급택 작가의 ‘영심이’는 중학교 1학년생인 사춘기 소녀 영심이의 심리를 코믹하게 그려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는 시간이 흘러 33세의 방송사 예능국 PD가 된 영심이의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송하윤과 그룹 슈퍼주니어 동해가 각각 영심이와 과거 영심이를 좋아했던 코흘리개에서 180도 달라진 왕경태를 연기한다.

머리털을 세워 변신하는 도술로 악당을 처단하는 머털도사의 이야기인 ‘머털도사’도 실사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된다. 이두호 화백의 원작만화와 1989년 MBC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영상화 작업에 나선 텍스터스튜디오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국형 히어로물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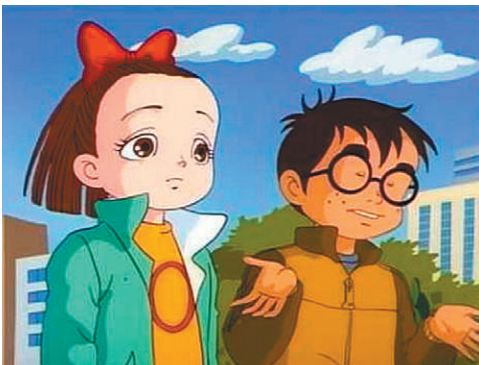
1990년대 수만 권의 판매 부수를 올린 만화 작품도 드라마로 나온다.

전극진·양재현 작가가 1994년 만화잡지 ‘영 챔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이후 28년간 무려 86권의 단행본을 선보인 대표적 무협만화 ‘열혈강호’도 영화 ‘변호인’과 ‘강철비’를 만든 양우석 감독의 손을 거쳐 드라마로 선보인다. 2024년 방영을 목표로 하는 양 감독은 “원작이 아시아 전역의 팬들을 지닌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드러냈다.

1998년 신형빈 작가가 신문 연재로 시작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도시정벌’도 드라마 제작을 목표로 출연진을 캐스팅 중이다. OCN ‘썰치’ 임대웅 감독이 연출한다. 거대 권력에 맞서는 불우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원작만화는 1000만권의 단행본을 판매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6일 “영상화를 할 만한 웹툰의 99.9%는 판권이 이미 판매된 상태다. 수천만 원대였던 가격이 역대로 치솟았지만 아직 소개도 안 된 웹툰의 판권까지 팔리고 있다”면서 “이에 아직 판권 등 IP가 활용되지 않은 만화 등을 꼬집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미 기자



1990년 방송한 KBS 애니메이션 ‘영심이’가 드라마로 제작된다. 사진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사진제공 | KBS